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학습 경험과
개선 과제 연구* **

-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수업 후기’ 사례를 중심으로

박 형 준***

차 례

1. 서론	4.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개선
2.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학습	과제와 방향
경험 연구 배경	5. 결론을 대신하여
3.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학습	
경험 사례 설계와 해석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학습자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 이 논문은 2025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논고는 2024년 4차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 한국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글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부교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을 학습하는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을 보여주는 고 맥락 데이터(Thick Data)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기 피드백 형태의 ‘수업 후기’를 사례 연구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와 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학습자들은 한국문학의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거나 한국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부분적 학습 내력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기존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은 총체적 맥락 속에서 교수·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텍스트를 중심에 두는 정 전 중심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세 번째,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지만 실제 학습 과정에서는 용어, 어휘, 한자 등과 같은 언어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느꼈다. 네 번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문학이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나 시대 상황이나 문예사조 등과 관련한 개념, 어휘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학습자, 한국문학사 교과목, 수업후기 (자기 피드백), 사례 연구 방법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문학교육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을 향유하는 독자와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척박한 한국학 연구 환경에서도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용하고 공유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깊이 있고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교육적 위계를 갖춘 목표와 내용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과 관련한 논의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¹⁾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현장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이 상당한 간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방향, 특징, 내용(성취수준) 등의 열개가 갖춰지긴 했지만,²⁾ 공식 교육과정(이론)과 교실 교육과정(실천)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어려움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한국문학 작품이 언어와 문화 교수·학습의 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이 학습 자료만이 아니라

1)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현장의 한국문학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인교,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권, 한국문화사, 2005, 244-277쪽; 류종렬,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35호, 한중인문학회, 2012; 강경희·강승혜, 『한국어문학교육 연구 현황과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11-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 29-64쪽; 장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소재 국립대학교의 한국문학 교육 현황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64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2, 127-148쪽.

2)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2020.

언어·문화·문학을 통합하는 교육적 텍스트이자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과 연구가 확장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 둘째, 국내외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내용이 위계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학습자의 목적, 동기, 능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학업 목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이다.

일반 목적 학습자와 달리,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문학에 대한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학을 ‘학문 목적’으로 학습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험과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한국문학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논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을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개설되고 있는 한국문학교육의 주축 교과목은 ‘한국문학사’와 ‘한국문학강독’이다.⁴⁾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면, 국내외 외국어로서 한국어 및 한국학 학습자들은 대체로 ‘한국문학사’나 ‘한국문학강독’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문학 관련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역량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역사, 사조, 대표 작가와 작품 등을 다루는 ‘문학사(文學

3) 김현정,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문학 수업 사례 연구-윤동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9호, 인문과학연구소, 2023, 147쪽.

4) 이에 대한 사례와 근거는 다음의 연구 성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4, 12-23쪽; 정서영,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수업 현황 및 요구조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3, 237-238쪽.

史)’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술 지식 습득의 기본 내용이 된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사교육 관련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⁵⁾ 먼저 지식 전수 중심의 한국문학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매개로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 지역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문학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 성과가 있다. 한국문학사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문학 학습 내용과 달리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전공 지식을 축적하고 확장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학사 학습 과정과 경험은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현상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되며, 비록 소수집단의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학습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사례’로 탐구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와 한국문학사 교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를 질적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⁶⁾ 학문 목적 한국문학교육 수용자의 학습 경험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 5) 남연, 『한국 문학사 교육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작품 선정 연구-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6-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73-115쪽; 김영,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 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고전문학사 교육 방법-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65-92쪽; 김소연,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사 지식 교육의 반성과 성찰-1920~30년대 시의 상호문화적 이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7호, 국어교육연구소, 2021, 35-69쪽 등의 학술적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 6)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관찰이나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자의 심층적 반응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례 연구 방법(Qualitative Case Study)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2-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2.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학습 경험 연구 배경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식과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문학을 학습하고 향유하는 수요/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학은 학술적인 범주에서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어교육학’을 포괄하고 있지만,⁷⁾ 동일한 교과목—예를 들어 ‘한국문학사’ 교과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에 따라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내용, 방법 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연구 성과들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경험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한국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모국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초과하여 학습자들의 “성별, 사회적 계층, 직업, 나라, 나이 등”이 문학 작품에 대한 반응(이해, 해석, 평가, 성찰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현재까지도 학문 목적의 한국학 연구 장에 진입하는 내·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기존의 국어국문학(혹은 한국어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목표, 내용, 방법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학습 및 수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어교육 분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⁹⁾ 그 이유는 첫째, 한국문학 연구와 교육의 학문·제도적 기반이 ‘국어국

7)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4, 5-11쪽.

8) 이홍매, 「한국어 학습자의 반응 텍스트 양상 연구」,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교육과 문화교육』, 국학자료원, 2021, 240쪽.

9)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듯,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초·중급 단계)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능력이 중시되며, 한국어 수업에서 문학 작품을 다루거나 활용할 경우에도 문학 작품의 원본 특질, 해석과 판단, 문학사적 평가 등이 아니라 교육용 텍스트(simplified text)의 기능성이 더욱 중시된다.

문학(한국어문학)' 분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문학 텍스트 및 내용 선정의 근거는 전통적인 국학(國學)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어교육학이나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까닭이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어국문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문학 및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연구, 교육, 활용 등은 크게 변별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한국문학 연구에 대한 공통/누적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세부 학문 분과와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진다. 학습자의 문학 교수·학습, 연구 목적, 요구 정도와 언어·문화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반드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접해야 하는 학습자의 전제 조건을 생각한다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위계와 목적에 맞는 교육 내용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학습/연구 목적과 언어 능력(초급, 중급, 고급)에 적합하고 위계성과 단계성을 고려한 텍스트 선정 기준과 내용이 고안되어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혼란과 어려움 없이 문학작품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수·학습 및 상호문화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⁰⁾ 이를 위해서는 학문 목적으로 한국문학을 연

10) 한국학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만이 아니라 한국학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윤여탁이 “한국어교육학”이 “한국학의 중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학 연구가 한국어교육학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른 시기부터 주장해 온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개진한 연구들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의 언어 능력 및 변수에 따른 목표, 내용,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근자에 출간된 연구서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교육과 문화교육』 역시 학습자의 국가·지역·세대·언어·인지 조건과 학습 경험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윤여탁, 앞의 책, 27쪽.

구/공부하는 학습자의 경험과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어국문학 학습자와 한국어교육학 학습자의 성격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관점이 수요자 혹은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학 지식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학습자이자 독자인 교육 수용자의 감상과 반응을 중시하는 ‘학습자의 반응에 중심을 둔 문학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독자 혹은 학습자의 반응을 지지하는 문학교육의 패러다임은 수용미학, 독자반응비평 등의 사상적,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¹¹⁾ 두 이론은 문학 텍스트 자체를 숭고하게 생각하는 형식주의적 문학 감상 및 교육 방안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 해석, 평가하며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중시하는 수용자 중심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미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에 둔 문학 교수·학습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는데,¹²⁾ 이는

11)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은 모두 문학 의미 형성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수용미학이 독자의 ‘기대지평’과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적·보편적 수용 양상에 주목한다면, 독자반응비평은 개별 독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생성하는 주관적·정서적 반응 자체를 핵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할 때, 전자는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해석의 지평 확장, 후자는 학습자의 반응과 의미 구성 과정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옮김,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2008을 참조할 것.

12) 박성,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독자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4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97-219쪽; 윤선숙·조유영,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육 방안: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10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321-348쪽.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수업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을 처방할 수 있는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 과제 중 하나가 외국어로서 한국문학을 학습하는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이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학습해야 하는 ‘학습 당사자’¹³⁾가 교육내용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나 학습 경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문학 학습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설계할 때는 통계에 기반한 빅데이터와 더불어 학습 당사자의 고맥락 데이터(Thick Data)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른바 썩데이터(Thick Data)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가 갖는 특수한 독자성을 실제 맥락 속에서 포착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 접근의 한국문학교육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¹⁴⁾ 이 데이터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논고에서는 자기 피드백 형태로 제출된 ‘수업 후기’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문학 학습 및 수용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 후기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수업 성찰이라고 했을 경우 교수자의 수업 성찰, 비평, 컨설팅, 그리고

13) ‘학습 당사자’라는 개념은 ‘당사자’의 관점을 중요하시는 교육 연구 방법에서 차용하였으며, 학습 주체의 권리, 입장, 참여 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 논고에서 사용하는 ‘학습자’라는 용어는 ‘학습 당사자’를 지칭하며, 특별히 의미를 강조할 때는 ‘학습 당사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박형준,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제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2021, 53-58쪽을 참조할 것.

14) 썩데이터(Thick Data)는 학습자의 발화, 사고 연상과 변화, 정서적 반응 등을 수용자의 경험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썩데이터가 에스노그라피와 사용자 경험 이해에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진호·이정선, 『Thick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장례서비스 방향성 연구』, 『서비스연구』 26호,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0을 참조할 것.

교수자 자기 점검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작업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후 자기 성찰이 실제 교과 및 내용 개선에 토대가 된다는 전제 아래 ‘수업 후기’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이를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았다.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관찰이나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자의 심층적 반응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례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⁵⁾ 그 이유는 첫째, 학습자가 한 학기 동안 경험하고 통찰한 내용, 변화, 어려움을 당사자의 언어로 정리하며 재구성할 수 있다. 둘째, 심층 면담이나 대면 인터뷰(한국어 말하기)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성찰, 개인적 생각, 정서적 반응 등을 학습자 당사자의 시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고맥락 정보(Thick Data)를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다. 셋째, 수업 후기는 종강 후 기록되는 자기 피드백으로 수업 전 과정의 핵심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¹⁶⁾ 한래희는 후기 형태의 자기 피드백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며, 교수자에게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수업 반응을 진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이원희는 수업 후기에 기반한 자기 피드백은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강의평가가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성찰 도구로 기능하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상, 어려움, 성취 효과, 상호작용 등을 수업 개선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에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학문 목적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한국어 학

15) Robert K. Yin, 신경식 외 옮김, 『사례 연구 방법』, 한경사, 2023을 참조할 것.

16) 학습자의 수업 후기 형태의 자기 피드백, 즉 교수자 입장에서는 수업 후기 형태의 학습자 반응을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한래희, 『자기 피드백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사고와표현』, 12-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47-182쪽; 이원희, 『후기 형태 자기 피드백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61호, 언어정보연구원, 2024, 265-302쪽 등을 들 수 있다.

습자 수업 후기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학습 경험을 정리하고 분석해 볼 것이다.

3.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학습 경험 사례 설계와 해석

3.1 학습 경험 사례 조사를 위한 연구 설계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문학 교수·학습 내용을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에 기반한 질적 사례를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했다. Robert K. Yin(6판, 2023)에 따르면, 사례 연구 방법은 “개인의 생애 주기, 소그룹 행동, 조직과 관리 과정, 이웃 변화, 학교 성과” 중심의 분석이 요구되는 질적 연구에 유효한 방법으로 “데이터 포인트보다 관심 대상 변수가 많은 경우”¹⁷⁾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논고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 방법 중에서도 ‘수업 후기’ 형태의 자기 피드백에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문학 교과목을 수강한 후 경험한 학습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개별 수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과 변수를 제한된 맥락 속에서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굳이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 이론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수행평가 결과나 시험 성적만으로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고에서는 학습자가 수업의 전 과정을 ‘회고 및 성찰’하며 작성한 후기에서 드러나는 인지적, 정서적, 맥락적 반응에 주목하였다.

17) Robert K. Yin, 신경식 외 옮김, 『사례 연구 방법』, 한경사, 2023, 29-44쪽.

수업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포함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강 후 수집된 자기 피드백 형태의 서술형 후기는 학습자가 한 학기 동안 축적한 문학 교수·학습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구성해내는 고맥락 자료(Thick Data)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당사자의 경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례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¹⁸⁾ 수업 설계 및 수업 후기 수집 계획 → 수업 운영 및 수업 후기 취합 → 수업 후기 자료 분석(자료 정리 및 유형화) → 질적 분석 자료에 대한 결과 해석 → 시사점 및 개선 과제 도출 등의 순서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했다.¹⁹⁾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설계 절차

수업 설계 및 수업 후기 수집 계획 → 수업 운영 및 수업 후기 취합 → 수업 후기 자료 분석(자료 정리 및 유형화) → 질적 분석 자료에 대한 결과 해석 → 시사점 및 개선 과제 도출

- 연구 설계 내용

-운영 학기 : 2024년 2학기

-운영 과목 :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한국문학과 한국어’

-내용 범위 : 원시고대 시기~1950년대까지

-교과 교재 : 김현양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문화사, 2012

-연구 참여자 : 8명(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

-참여자 국적 :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참여자 한국어능력 : 8명 모두 고급(5~6급) 수준

-위의 수업(1~15주차)에 참여한 대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한국

18) Robert K. Yin, 앞의 책, 108쪽.

19) 참고로 이 강좌의 전체 수강인원은 16명이며, (연구 조사 및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모두 자기 피드백 형식의 수업 후기를 작성·제출하였다. 다만, 이 논고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는 표집 대상(연구 참여자)의 수업 후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외국인 학습자의 수업 후기 비교 분석은 별도의 논고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문학 수업 참여 경험을 정리하고 향후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 내용을 더욱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한 수업 후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교수자는 사전에 연구 취지, 목적, 의의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명했으며, 수강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구 및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음.

- 수업 후기 형태의 자기 피드백 문항은 총 10개의 서술형 질문
- 수업 후기 서술형 질문 구성은 한국문학(고전/현대)의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기억, 내용에 대한 감상 및 평가, 자유 의견 등

목적 표집의 대상이 되는 연구 참여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와 ‘한국문학과 한국어’²⁰⁾ 교과목을 수강한 외국인 유학생 8명으로, 한국어능력이 5~6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이며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다. 국적, 한국어능력 등에 대한 기본 정보 조사도 진행하였으나, 이 연구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표집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요소는 자료 조사 및 분류의 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연구 표집 대상자가 수강한 ‘한국문학과 한국어’, 즉 한국문학사 수업은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까지 한국문학의 흐름과 주요 작가 및 텍스트를 개괄하고, 시대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이해하는 ‘단일사례 연구의 소규모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는 수업 운영 중 관찰이나 면담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 종강 후 회고적 기술을 통해 학습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에 대한 학술적 검토,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거쳐 해당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15주차 수업 종료 전/후 표집 대상이

20)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는 경우 ‘한국문학의 이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을 한국문학의 개념, 역사, 특징을 이해하는 문학사 수업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되는 참여자들에게 설명과 승낙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²¹⁾

자료 수집은 총 10개의 서술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세부 질문의 내용은 학습 당사자의 한국문학 학습 내력,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 학습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 학습 내용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역사, 작가, 작품, 특징에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유 후기 등 학습자의 경험 전반을 포괄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만족도 설문도 아니라, 한국문학 개념, 장르, 대표 작가와 작품, 시대적 특징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정서적 반응, 인지적 어려움, 문화적 통찰, 수업 전·후 변화를 학습자의 시각에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수업 후기’ 자료는 학습자의 응답 서술에서 유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어휘 및 내용을 코딩하여 범주화하였다. 그것은 크게 ‘한국문학사 학습 내력’, ‘한국문학사 학습 기억’, ‘고전문학에 대한 반응’, ‘현대문학에 대한 반응’ 등으로 주제화되었다. 이러한 설계, 조사, 주제 범주 도출을 통해 고급 수준의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문학사 학습 과정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또 한국문학사교육이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학습 경험(사례)의 해석 결과 및 시사점을 유형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3.2 학습 경험 사례 조사 결과 해석 및 시사점

3.2.1. 한국문학사 학습 경험의 부재와 분절

첫 번째로, 학문 목적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학습자 대부분은 한국문학

21) 이 교과목의 개강 및 종강 시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로 ‘개별 동의’를 받은 후 익명화 절차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했다.

의 역사(흐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거나, 한국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학습 내력만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²⁾

학습자들의 과거 학습 과정에서 “한국문학의 역사”와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문학사(文學史)에 대한 학습 경험은 대부분 부재하는 것으로 응답·서술하였다. 문학교육에서 ‘문학 학습’과 ‘문학 역사 학습’을 분리했을 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한국문학사에 대한 체계적 학습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이전에 공부한 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문학사라는 문학 지식 체계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우 새롭고 생소한 학문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공부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 이전에 한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이 수업 이전에 한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3학년과 4학년 내내 역사 시간에서 역사를 배웠고 문학 시간에서는 한국문학 작품들을 배웠습니다. 그 때는 시나 소설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정을 걸쳐 배웠습니다.

-이 수업 이전에는 한국 문학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학부때에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시 한 편을 분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22) 이는 학습 배경과 관련한 수업 후기의 질문지(“<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는 한국의 고전문학과 근·현대문학의 특징,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공부했습니다. 이 수업 이전에 한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계기(중등학교 국어 및 외국어 수업, 대학교 전공 혹은 교양 수업 등)로 한국문학의 역사 혹은 관련 내용을 공부하였습니까?”)를 통해 추출되었다.

-이 수업 이전에 한국문학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공부를 못했지만 대학교 때 한국문학인 시나 소설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 학습자의 경우 학부 시절에 시나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문학 작품 및 지식 단위의 경험일 뿐, 문학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문학 지식의 학습과는 구별되는 ‘분절된 학습 내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현상과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문학사’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경험이 거의 부재하거나 파편화(“역사 시간에서 역사를 배웠고 문학 시간에서는 한국문학 작품들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때 한국문학인 시나 소설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의 역사를 학습해 온 모국어 학습자와는 다른 성취기준과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체로 한국문학사를 처음 접하거나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문학사 학습에 대한 학습 경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²³⁾ 한국문학을 단순한 작가, 작품의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정치, 경제가 아우러지는 총체적 지식으로 수용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3.2.2 텍스트 중심 문학 학습 경험과 확장 가능성

두 번째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특정 작품 및 장르를 중심으

23) 예를 들어, 자유 학습 후기 질문(“2024년 2학기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얻은 것, 아쉬웠던 것, 기타 학습 후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세요.”)에 대해 “한국 문학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문학 속에 숨어 있는 역사, 문화 등을 발견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심층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과 같은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 한국문학을 기억하고 의미화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이 한국문학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교수·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텍스트를 중심에 두는 정전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문학사 교과목 ‘한국문학과 한국어’를 수강 및 이수한 학습자들은 문학사에 대한 학습 경험과 체계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텍스트와 장르 등은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 영역에서는 ‘진달래꽃’, 김소월, 한용운 등과 같이 한국현대시교육에서 흔히 다루는 작품과 시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소설과 설화 영역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제외하고 나면) ‘소나기’, ‘동백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단군신화’ 등과 같이 한국문학교육에서 자주 다루는 작품을 언급한다. 이와 같은 응답·서술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문학 학습 경험이 문학 정전 중심의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 : 소나기, 동백꽃, 시 : 진달래꽃 작가 이름을 기억 못 합니다.

-시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시가 현대 시였고 짧은 시였다는 점만 기억합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은 이야기의 내용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무거운 압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황순원’ 작가님의 ‘소나기’ 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단편소설로, 섬세한 감성과 아름다운 서정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제 기억에 남은 작품은 단군신화,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한강의 채식주의자,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입니다.

-제 기억에 남은 시조의 특징은 사람들이 시의 형태로 창작하는데 이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며, 사대부는 왕에게 충성한 마음을 표시한 주제, 기생은 사랑의 주제로 시조를 만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학문 목적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을 경험한 학습자의 경우 시, 소설, 설화 모두 대체로 한국문학 정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과거에 접했던 한국문학 작품, 작가, 장르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환기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문학사 수업 이전에 학습자들이 보유한 문학적 배경지식과 학습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응답에서 “작가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라거나 “시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발견된다는 점인데, 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교육이 핵심 텍스트(작품과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증례이면서,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 방향이 문학사(文學史)를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문학사교육은 학습자에게 문학적 흥미와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준 중요한 과정”, “한국어교육에서도 활용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자기 기술은 한국문학사교육이 학습자에게 단순한 지식 제공을 넘어 동기 유발과 교육적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임을 보여주는 증례이다.

3.2.3. 고전문학에 대한 이중 인식과 상호문화 의사소통

세 번째,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는 대체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학습 과정에서는 용어, 어휘, 한자 등과 같은 언어적 요인에 의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한 고전문학에 대한 자기 피드백을 정리해 보면,²⁴⁾ 고대, 중세 시기의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두고

24) 한국문학사 수업 내용 중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자기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는 ‘원시고대 시기의 문학부터 조선 후기의 문학’까지 고전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고전문학의 역사를 공부하

“낯선 단어”, “역사 관련 어휘”, “한자로 된 문학 작품”, “지금의 한글과 다른 표기” 등과 같이 고전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기술되고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고전문학이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텍스트임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주술”, “몽유록”, “향찰” 등과 같은 고전문학 특유의 개념어는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는 대체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내용으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책에서 사용한 어떤 단어들을 낯설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술이나 몽유록 같은 단어들입니다.

-원시고대 시기의 문학부터 조선후기의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거나 한글도 지금의 한글과 다르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조, 가사와 경기체가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생각합니다. 변화를 많이 발생했고(예: 음보 변화) 그 원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전문학의 역사를 공부했을 때 역사 관련 단어 너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암기할 시간 좀 필요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전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한문 문학이었습니다. 한자로 창작된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향찰로 기록된 한국 고유의 서정시인 ‘향가’와 한문으로 지어진 서정시인 ‘한시’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공부하려면 한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고전문학 수용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정

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는 ‘원시고대 시기의 문학부터 조선 후기의 문학’까지 고전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고전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리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한국문학사 학습 과정에서 접하게 된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학습과 작품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만 고전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특히, 한국의 설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전문학이 가진 이야기 구조나 문화적 상징성이 비슷한 보편서사(설화)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 매력적인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이 수업을 마친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문학과 한국문학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며 ‘상호문화 의사소통’²⁵⁾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읍사의 배경설화와 비슷한 전설과 노래가 있다”는 자기 기술은 학습자가 한국 고전문학을 타국가의 문화적 지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 자원과 비교하며 문화 간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사 수업이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극하고, 비교문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고전문학은 상당한 학습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히 어휘나 용어 문제만이 아니라, 고전문학의 다양한 갈래-시조, 가사, 경기체가, 향가, 한시-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역사적 특징이 학습자에게는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고전문학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2.4. 현대문학에 대한 중층 인식과 사회·문화 재현

네 번째,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용 경험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문학을 둘러싼 작가의 태도,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동시에 시대 상황이나 문예

25)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상호문화 의사소통은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2020, 2쪽.

사조 등과 관련한 개념적 어휘나 작품 해석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한 현대문학에 대한 자기 피드백을 정리해 보면,²⁶⁾ 한국의 근·현대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변화 양상과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일대기와 해석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윤동주 작가님의 작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의 시에는 저항과 슬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어 감동적”이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갈등을 잘 그려내어 근대적 사고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자기 진술은 현대문학에 대한 교수·학습 경험이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수업에서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문학, 특히 윤동주 작가님의 작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의 시에는 저항과 슬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대계몽기 문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 이 소설은 당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갈등을 잘 그려내어 근대적 사고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식민지로 인해 정향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협력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은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로 인해 군대를 지지하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으로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것 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26) 한국문학사 수업 내용 중에서 현대문학에 대한 자기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는 ‘근대계몽기 문학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에서는 ‘근대계몽기 문학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계급주의가 어떤 주의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문학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리얼리즘, 낭만주의, 휴머니즘 같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어떤 언어는 사전에서도 검색해도 의미가 안 나왔어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현대문학 수용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현대문학이 역사, 사회,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지점에 주목했으며, 이 부분은 한국문학사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문학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단순히 문학 영역의 전문 지식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현실을 이해하는 언어와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현대문학을 역사와 문화 이해의 학습 계기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예사조, 한국의 역사 및 사회적 조건 등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문학사 전체 내용 및 작품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중층적 요소이다. “근·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자기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는 단순히 어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문예사조(“계급주의”,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이론과 같은 복잡한 지식 체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4.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개선 과제와 방향

지금까지 정리한 질적 자료 및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

27) 또한 「혈의 누」나 「무정」과 같은 근대문학 텍스트는 서사 구조나 표현 방식이 현재의 문학과 달라서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기 기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대문학의 문체가 고전문학보다는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근대 이행기의 독특한 문체, 주제, 구성 방식을 갖고 있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 학습자가 한국문학사(‘한국문학과 한국어’) 수업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며, 문학사 학습이 수용자의 학습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범박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문학사 학습을 통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 영역과의 통합적 학습 경험을 얻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문학 표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하면서도, 현대문학의 난해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복잡하고 싶다”고 진솔하여 꾸준한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문학사 수업에 대한 학습 반응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배경까지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하며, 문학을 통해 한국 역사를 함께 이해하는 학습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사 수업을 단순한 작품 나열이 아닌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의미가 결합된 학문적 경험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문학사 수업에 대한 자기 성찰이 드러나는 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문학 표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현대 문학의 내용 중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한 것이 아쉽습니다. 좀 더 시간 내서 복잡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웠고, 문학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심층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학을 통해 한국의 각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어휘와 표현의 변천 과정을 알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음사의 배경설화와 비슷한 전설과 노래가 있습니다. 이 전설과 노래의 이름은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망부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 한국 문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준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문 목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자기 성찰 과정을 종합하자면, 첫째, 한국문학을 단편적인 작품 이해가 아니라 역사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수·학습했을 때 학습자의 흥미와 성취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한 학습자 수용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교육 역시 언어, 문화, 문학이 분절된 채 학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학습은 언어, 문화(역사), 문학의 통합 교수·학습 모델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목적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단편적인 정전 위주의 문학 교수·학습을 지양하고 한국문학의 시대적 흐름과 작가, 작품, 특징을 통합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교육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문학사 학습 이전에 한국문학을 접한 경험이 부재하거나 파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나 소설을 개별 텍스트 차원에서 접해본 것은 있으나, 이를 시대적, 장르적, 작가론의 흐름에서 학습한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은 텍스트 단위의 단기 정보에 머물러 있고, 작품 간 연계성이나 시대적, 문화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기회는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문 목적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은 텍스트 감상과 함께 문학사적 구조화가 가능한 교육 내용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문 목적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요구되는 ‘한국문학사’ 교육 내용을 개발할 때는 기존의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분과에서 활용하는 교육 내용과는 차별화된 내용 선정 및 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설화와 같은 보편서사 장르에는 긍정적,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학습 과정에서는 고전문학을 구성하는 어휘, 표기 체계, 역사적 배경 등

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는 현대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문학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학습자의 흥미나 반응과는 별개로, 현대문학 학습에서도 문예사조, 역사적 사건이나 용어 등에 대해서는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문학사 교육 내용(어휘, 용어, 작가, 작품, 역사, 문예사조 등과 관련한 배경지식)은 학습자의 특성과 위계를 고려하여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고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핵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에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학사 교과목의 한국어 학습자 수업 후기(자기 피드백)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 한국 문학교육의 학습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는 학습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비록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 연구는 아니지만, 수업 후기에 기반한 현장 연구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나 심층 면담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어로서 한국 문학교육 수요자의 인지적, 정서적, 맥락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수업 후기 형태의 자기 피드백은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학습자의 문학사 수업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질적 자료(Thick Data)를 제공해주며, 실제 현장의 한국문학사 교수·학습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핵심 정리하면,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

은 한국문학에 대한 흥미와 잠재적 학습 동기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 학습 과정에서는 어휘, 용어, 한자, 장르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현대문학에서는 문예사조와 시대적 배경, 근·현대 문학 장르 변화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론과 실천, 연구와 현장 사이의 간극은 크다. 이 연구는 한국문학 학습 경험이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작품 간 연계성과 시대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참고문헌

- 김소연,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사 지식 교육의 반성과 성찰-1920~30년대 시의 상호문화적 이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7호, 국어교육연구소, 2021, 35-69쪽.
-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2020.
- 김영,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 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고전문학사 교육 방법-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65-92쪽.
- 김현정,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문학 수업 사례 연구-윤동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9호, 인문과학연구소, 2023, 141-173쪽.
- 남연, 『한국 문학사 교육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작품 선정 연구-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6-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73-115쪽.
- 류종렬,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35호, 한중인문학회, 2012, 29-63쪽.
- 박성,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독자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4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97-219쪽.
- 박형준,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재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집,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2021, 49-73쪽.
- 박형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특징과 과제』, 『배달말』 71집, 배달말학회, 2022, 305-335쪽.
- 윤선숙·조유영, 『반응 중심 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고전시가 감상 교

- 육 방안: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10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321-348쪽.
-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교육과 문화교육』, 국학자료원, 2021.
-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4.
- 이원희, 「후기 형태 자기 피드백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개선 방향
에 관한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61호, 언어정보연구원, 2024,
265-302쪽.
- 정서영,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수업 현황 및
요구조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3,
231-259쪽.
- 한래희, 「자기 피드백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사고와표현』,
12-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9, 147-182쪽.
- 황인교,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권, 국제한국
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2005, 244-277쪽.
- Louise M.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옮김,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
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2008.
- Robert K. Yin, 신경식 외 옮김, 『사례 연구 방법』, 한경사, 2023.

<Abstract>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i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 Focusing on the case of 'class reviews' for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Course

Park, Hyung-Jun*

This paper analyzes the learning experiences of learners of Korean literature as a foreign language, focusing on their class reviews in the form of self-feedback in a Korean literature history course. It also proposes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Drawing on reception aesthetics and reader-response criticism, which serve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learner-centered literature education, this study adopted learners' self-feedback in the form of class reviews as data within a case study methodology, thereby enabling the collection of high-contextual (thick) data that reflects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learners of Korean literature as a foreign langu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 learners had little or no prior experience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or possessed only partial learning experiences related to Korean literary works and authors. Second, existing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tended to focus on canonical instruction, emphasizing specific texts rather than teaching and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arning within a holistic literary context. Third, despite learners' strong interest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hey encountered difficulties in the actual learning process due to linguistic factors such as terminology, vocabulary, and Chinese characters. Fourth, while Korean language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showed a keen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reality, they also had difficulty with concepts and vocabulary related to historical contexts and literary movements.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of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history course, class reviews (self-feedback), case study

■ 논문접수 : 2025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5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25년 12월 18일